

‘대국민 토크쇼-안녕하세요’ 300회

웃음과 눈물 공감... 시청자와 동행 6년

신동엽·이영자·컬투 입담에 고민 술술~

비상식적 사연 종종 등장 불신 날기도

나의 고민을 낚신 사람들과 공유하는 시대다. 적잖은 종이 매체가 고민 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TV와 라디오에서도 소소한 고민과 기구 절절한 사연이 넘쳐난다.

21일 300회를 맞는 KBS 2TV ‘대국민 토크쇼-안녕하세요’도 시청자관 ‘라디오스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1회부터 이 프로그램과 함께한 전은누리 PD는 “연예인이나 전문 방송인도 아닌, 일반 시청자와 함께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벌써 6년이 됐다고 하니 신기할 따름”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 시청자 고민 듣는 토크쇼...“오늘만큼은 당신이 주인공”

지난 2010년 11월 22일 출발한 ‘안녕하세요’는 고민이 있는 사람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이야기를 듣는 토크쇼다. 프로그램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유선 전화 등을 통해 전국에서 갖가지 사연이 도착한다. 여섯 명의 작가가 중심이 돼 전화나 대면 인터뷰 등을 통해 사연의 주인공들과 접촉한다.

제작진은 해당 사연이 방송에서 다룰 수 있는 소재인지, 풀이갈 이야기가 많은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지 등을 따져 사연을 선택한다. 방송 출연 이후 주인공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

“무언가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거나, 아픔이 있는 사람들과 관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보면 비슷해요. 하지만 그걸 겪어내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 그 구체적인 이야기의 결과 대처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있어요.”

전 PD는 “오늘만큼은 당신이 주인공이고, 어떤 인기 연예인이 출연했든 간에 여기 모인 모두가 당신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모였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 신동엽·이영자·컬투의 어우러짐...“출연자 무장해제”

‘안녕하세요’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신동엽, 이영자, 컬투(정찬우·김태관)라는 네 명의 진행자다. 1회부터 이 프로그램을 끌어온 신동엽은 은근 수위가 높지만 선은 넘지 않는 발언으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이영자는 녹화를 끝낸 출연자들로부터 항상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 진행자다.

전 PD는 “출연자가 긴장하거나 눈물을 흘릴 때 영자 언니 몸이 알아서 그 출연자 손을 잡고 있는 걸 본다”면서 “출연자를 무장해제 하는 힘을 가진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청취율 1위의 SBS 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를 10년간 끌어온 컬투도 신동엽과는 또 다른 재치와 센스로 분위기를 쥐락펴락한다. 전 PD는 “이 조합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라면서 “네 사람 모두 스타일이 달라서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금방 서로 맞춘다”고 혀를 내늘렸다.



◇ 조작 방송 논란도...“평범치 않은 사연 많아”

‘안녕하세요’에도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아내보다 처제를 좋아하는 남자’ 편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연이 종종 등장하면, 불신의 눈길을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출연자가 방송에 나오려고 사연을 꾸며냈거나, 제작진이 시청률을 노리고 더 자극적으로 연출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프로그램은 종종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런 비난이 속상하다는 전 PD는 “우리도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평범치 않은 사연들이 많다”면서 “말리 내다보지 않고 (단기적인 흥행을 위해) 방송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6년을 버텨오진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출연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은 물건들을 판 수익금을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안녕하세요’ 300회 특집은 오는 21일 밤 11시10분에 방송된다. /연합뉴스

빅뱅 컴백 임박... 포스터·뮤비 영상 공개

8년만에 정규앨범... 탑 입대전 마지막 앨범 기대감 고조

그룹 빅뱅이 기습 티저와 함께 전격 컴백을 예고했다.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19일 오전 YG 공식 블로그(www.yg-life.com)를 통해 ‘BIGBANG MADE FULL ALBUM COMING SOON’이라는 타이틀의 포스터를 공개했다.

빅뱅의 컴백이 12월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YG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BIGBANG, #NEWALBUM, #COMING-SOON’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빅뱅 멤버들이 5인 자전거를 함께 타며 시장 골목을 누비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영상을 공개해 빅뱅의 컴백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앨범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남다르다. 공개될 빅뱅의 정규 3집은 1년여 만의 신곡 발표이자, 8년 만에 발표하는 정규앨범으로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메이드’(MADE)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앨범이다.

특히 이번 앨범은 멤버 탑(본명 최승현·29)의 군 입대 전, 완전체 빅뱅의 마지막 앨범이라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그룹은 내년 1월 서울 고척 스키아돔에서 ‘빅뱅10 더 콘서트(BIGBANG10 THE CONCERT) - 0. TO. 10 FINAL IN SEOUL’을 개최한다. 이 공연을 마치고 탑은 입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영화 ‘남한산성’ 이병헌·김윤석 등 호화 캐스팅

오늘 크랭크인 내년 개봉 예정

‘도가니’, ‘수상한 그녀’를 연출한 황동혁 감독의 차기작 ‘남한산성’에 홍우로의 대표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최근 CJ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남한산성’에 이병헌, 김윤석, 박해일, 고수, 박희순이 최종 캐스팅됐다.

‘남한산성’은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 당시 청의 공격을 피해 임금과 조정의 남한산성으로 숨어들고, 밖으로 나갈 수도 공격할 수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47일간의 이야기를 그렸다. 김훈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이병헌은 순간의 처움을 감내하더라도 임금과 백성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는 주화파 이조판서 최명길 역을 맡았다. 김윤석은 정의 치욕스러운 공격에 맞서 끝까지



싸워 대의를 지켜야 한다고 믿는 척화파 예조판서 김상헌으로 출연한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신들 사이에서 번민하는 왕인조는 박해일이, 충고 배고픈 고통 속에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대장장이 서남쇠는 고수, 산성의 방어를 책임지는 수어사 이시백은 박희순이 각각 맡는다.

21일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하며 내년에 개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불발)	10 KBC 모닝와이드 3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방송 뉴스 45 기쁜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4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00 월화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 특별판(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토크콘서트 화통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30 KBC 12 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열린공간 토크 Talk (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05 KBS네트워크특선 방송의 전설 55 별빛가족	00 이웃집 찰스 (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닥터 365
2	00 2016 천하장사 씨름대회 천하장사 결정전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	00 키즈 사이언스 6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독
3	55 토티생활체조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토크? 키즈스쿨 55 깨비탐험대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30 특집 SBS 뉴스 이슈진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파(재)	00 MBC이브닝 뉴스	30 SBS 뉴스 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남'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SBS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	00 월화 특별기획 (불야성)	00 월화미니시리즈 (남만두터 김사부)
11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10 300회 기획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여행 길	10 꽃놀이매
12	20 인간극장 스페셜(재)	4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35 출발! 비디오 여행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아시아 시장기행>	09:30 이말! 스페이스 정글 09:40 부모-위대한 엄마 10:30 출근용 인생, 세시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팬층지 조림과 감자볶음)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 마루의 어드벤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한국에 산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3:40 출근용 수학 EBS MATH 13:50 그림을 그려요(2) 13:55 시계마을 타키톡! 14:25 허풍선이 과학쇼
07:30 로보카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당동당 유치원 1~2 08:30 엄마 까투리 08:45 부릉!부릉! 부루미즈 09:00 방귀대장 흥행이 09:15 출동! 슈퍼핑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 래빗 15:20 우주탐험가 컷 15:35 요술 상자(2) 15:45 출동! 슈퍼핑크 16:15 방귀대장 흥행이(재) 16:30 부릉!부릉! 부루미즈(재) 16:45 당동당 유치원 1~2(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미안하, 축제의 땅을 가다 - 빛의 축제, 웨딩과 짜이티요> 21:30 한국기행 <가지마라 가을> 21:50 EBS 다큐 프리덤 <교육대기획 시험 - 누가 1등인가> 22:45 달라졌어요 23: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사랑의 연극, 목도리도요>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24:1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1일(음 10월 22일 丁未)
<p>子 48년생 발적으로 이동하는 대국이다. 60년생 부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72년생 여러 사람과 관련된 복잡 해지지만 하니 스스로 해내는 것이 무방하다. 84년생 혼자서 조용히 처리해도 되는 문제이다. 행운의 숫자 : 42, 13</p>	<p>午 42년생 강력한 추진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이다. 54년생 시의적절한 운로이니 활동반경을 넓히는 것이 유리하다. 66년생 오매불망하던 것을 기다리며 하루를 다 보내겠다. 78년생 예상 이 빛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8, 59</p>
<p>丑 49년생 협력하여 조처한다면 능률을 배가할 수 있다. 61년생 기본 개념을 중시해야만 하느니라. 73년생 부절절하면 반드시 시청하거나 교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85년생 전혀 다른 것이니 처음부터 관련시킬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01, 95</p>	<p>未 43년생 진행 속도를 높여도 무방하다. 55년생 발전을 위한 노고는 당연히 감수해야 하느니라. 67년생 구색을 맞추다 보면 효율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79년생 유사한 상황만 반복해서 계속될 뿐이지 별로 도움은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74, 80</p>
<p>寅 50년생 집착하지 마라. 62년생 무리수를 둔다면 필패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74년생 흐르는 물처럼 순조로울 것이니 마음 편히 먹고 일하면 된다. 86년생 지금은 힘들더라도 점점 수월해질 것이니 진중하게 진행하자. 행운의 숫자 : 32, 24</p>	<p>申 44년생 형세에 맞는 순발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56년생 태평성대의 길성이 비춰오고 있으니 매사가 길하리라. 68년생 매들이 풀리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겠다. 80년생 빈틈없이 도모한다면 기쁨이 이루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23, 75</p>
<p>卯 51년생 씩씩이 꾸리는 돌은 이끼가 갈 틈이 없으니라. 63년생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 75년생 사태는 불시에 발생하는 법이니 긴장을 늦추지 마라. 87년생 구색을 맞추다 보면 무리할 수도 있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98, 64</p>	<p>酉 45년생 지속적인 노력에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57년생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69년생 어떻게 행하는지 그 방법론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태가 될 수도 있다. 81년생 큰물에서 합류하게 되니 격동의 형세로다. 행운의 숫자 : 97, 90</p>
<p>辰 40년생 부실해질 염려가 있다. 52년생 본래의 취지를 희석시키지 마라. 64년생 치밀하지 않다면 뒤발이 생길 여지가 있다. 76년생 가장 실질적인 면에 매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88년생 편견을 가진다면 단차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03, 29</p>	<p>戌 46년생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로 보람을 느끼게 된다. 58년생 여건이 조성되면서 전체적으로 기여하는 관국에 이른다. 70년생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82년생 갑론을박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복잡다단한 형상을 이룬다. 행운의 숫자 : 28, 76</p>
<p>巳 41년생 대사를 도모할 수 있는 작기에 이르렀다. 53년생 순발력 있게 적응해야만 할 것이다. 65년생 확신을 갖고 차분하게 대응하라. 77년생 쾌재를 부르는 날이다. 89년생 이해와 배려가 따른다면 파생 효과가 크다. 행운의 숫자 : 19, 72</p>	<p>亥 47년생 마무리가 확실해야 한다. 59년생 어두움이 사라지면서 희망찬 미래가 밝아 온다. 71년생 변화가 생기면서 다소 답답함을 느낄 수다. 83년생 기회가 왔으니 앞뒤 재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38, 62</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